

보도시점 (인터넷, 지면) 2025. 7. 21.(월) **즉시보도**

## 7.16.~20. 호우 피해 수습을 위한 ‘피해자 통합지원센터’ 운영

- 충남·경남·광주전남권역 범정부 통합지원센터 운영, 피해자 일상 회복에 총력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7.16~20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‘피해자 통합지원센터\*’를 운영하고,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\* (참여기관) 행안·복지·환경·교육부, 국세청, 광주시, 충청남도, 전남도, 경상남도, 법률구조공단, 금융기관 등

□ ‘피해자 통합지원센터’는 3개 권역\*(충남, 경남, 광주·전남)에서 행안부 실장급을 센터장으로 운영되며,

○ ▲ 민원접수 ▲ 장례 지원 ▲ 의료·심리지원 ▲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▲ 통신·전력·가스 긴급복구 ▲ 법률 및 금융·보험 상담을 비롯한 각종 피해 지원사항을 통합 안내·접수한다.

\* ① 충남통합지원센터(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합체육센터)

② 경남통합지원센터(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)

③ 광주전남통합지원센터(광주광역시 청사 1층 로비)

※ 각 시군구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센터 운영, ‘피해자 통합지원센터’는 관할 지자체의 요청사항에 대해 총괄 지원

□ 아울러, 행정안전부는 ‘피해자 지원사항 표준 종합안내서’를 지자체에 배포해, 지자체에서 피해 상황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직·간접 지원 사항을 피해 주민에게 신속히 안내하도록 했다.

□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피해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”이라며,

- “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 
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재난복구지원국 수습관리과	책임자	과 장	윤의석 (044-205-5460)
		담당자	사무관	오주영 (044-205-5466)



## □ 구성 및 운영

- (기간) ~ 피해수습 종료시까지
- (장소) 충남권역(예산군), 경남권역(산청군), 광주전남권역(광주광역시)
- (구성) 행안부(센터장: 재난안전관리본부장)를 중심으로 충남·경남·광주전남권역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피해지원
  - 행안부, 복지부, 환경부, 교육부, 국세청, 금융기관 등 지원기관 참여
- (기능) 민원접수, 장례지원, 용자 및 세금·국민연금 상담 등 피해지원 기관이 한 곳에 모여 피해자에게 지원사항 통합 안내·접수

※ 운영 편제(안)

